

일감 부족·인력난 위기의 건설업

최저임금 인상 직격탄

춘천의 A 향토건설사는 하루 평균 1,100만원 상당의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다. 총 80여명의 근로자에게 시세보다 2만원가량 높은 14만원의 일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. 김모(64) 대표는 “최저임금이 2년 새 1만원 수준까지 오르면 근로자들이 노동 강도가 약한 타 업종으로 돌아서고 있다”며 “이탈을 막기 위해 추가 인건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”고 토로했다.

올해 최저임금 16.4% 오를 때 노임단가는 7% 인상 격차 줄어 노동강도 약한 업종 이탈 심화

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도내 건설업계를 뒤흔들고 있다.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 업종과의 임금 격차 축소로 근로자 이탈이 심화되면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

도내 건설업계는 이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. 정부의 SOC 예산 감

축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. 23일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올 2분기 도내 신규 공공공사 수주액은 총 4,455억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29.1% 가량 줄어들었다. 인력난도 현실화된 상태다. 통계청에 따르면 올 6월 도내 건설업 취업자는 전월의 절반 수준인 총 1,000명에 그쳤다. 앞선 3월(5만7,000명)에는 전년 동월 대비 2,000명 정도 감소했다.

건설 근로자 이탈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. 건설업 노임단가 인상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쫓아가지 못

하고 있기 때문이다. 현재 건설 근로자들은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직종별 ‘시중노임단가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다. 실제 올 1월1일 기준 보통인부(하루 8시간 근로)의 노임단가는 10만9,819원으로 전년 대비 7%가량 오르는 데 그쳤지만 같은 시기 최저임금은 16.4% 뛰었다.

대한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“인력 확보를 위한 추가 인건비 지출과 일감 부족이 맞물리면 건설업은 치명타를 맞게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윤중현기자 jjong@kwnews.co.kr